

歷史의 法則에 관하여

Takeo Iwasaki

〈동경대 교수〉

韓端錫 역

〈전북대 교수〉

이 論文은 1973년 5월 서울대학교 철학회의 초청을 받아 서울대학교에서 강연한 일본 동경대학 철학과 교수 이와사끼·다케오(岩崎武雄)박사의 英文강연 「On Laws in History」의 번역이다.

< I >

哲學이 歷史란 것을 그 주요한 제목으로서 다루게끔 된 것은 19c 이후의 일이며, 이러한 경향을 哲學에 導入한 것은 Hegel이었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Hegel은 道德性(Moralität, 英語로는 Morality)의 입장을 물리치고 그 대신 人倫性(Sittlichkeit)의 입장을 취했다.

[Sittlichkeit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Wallace는 그것을 Social Morality(社會的 道德)라고 번역하였고, Knox는 Ethical life(倫理的 生活)라고 번역하였다. 나는 그것을 오히려 Ethical law(倫理的 法則)라고 번역하고 싶으나 이 강연에서는 Sittlichkeit 라는 독일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는 Hegel이 歷史란 것이 지닌 거대한 힘을 認識하였기 때문이다. Hegel에 의하면 도덕성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歷史의 사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도덕적으로 善한 것을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것이다.

이 도덕성의 입장이 Kant 를 포함해서 18c의 계몽시대에 유포하였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Hegel은 이 입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는 歷史의 전 과정을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지배하는 법칙을 인식하여야만 하며 이 인식이 없이는 우리는 당면하는 歷史的 상황에 있어서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역사의 발전의 방향은 법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지배되어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실현하려 하여도 그 노력이 역사의 현재의 단계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무익할 것이다. 역사의 발전은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는 것이며, 개인은 역사 속에서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은 오히려 법칙에 의하여 조종되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결단하기 이전에, 우선 역사의 법칙을 인식하고, 역사의 장래의 발전을 통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역사의 법칙을 중시하는 입장을 헤겔은 Sittlichkeit(人倫性)라고 불렀던 것이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헤겔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이 Sittlichkeit 란 사상에 있다. 그리고 이 사상때문에 역사란 것이 그의 철학의 중심적인 주제로 되었던 것이다.

본시, Hegel철학에 있어서는 역사의 전 과정은 역사의 법칙에 의하여 점차 절대적 이념의 본질을 실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그리하여 이념의 본질은 자유이니까 역사의 과정은 자유를 실현하여가는 諸段階인 셈이 된다. 고대의 아시아에 있어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自由였다. 희랍 로마시대는 약간의 사람이 자유이었다. 그리고, 게르만의 세계로 되어 모든 人間이 자유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되었다. 이러한 Hegel의 생각은 물론 Kant의 觀念論的 形而上學의 기초위에 세워진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의 관념론적 형이상학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거의 어떤 사람이든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법칙을 중시하는 Hegel의 사상은 아직도 현대의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Hegel 철학과 같은 형이상학

적 철학은 이제 쇠퇴하여졌다. 그런고로 Hegel이 생각한 것을 검토할 필요는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얼핏 보기에 기묘하게 느껴지기도 모르지만, Hegel의 관념론적 형이상학에 반대하여 스스로 과학적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현대의 철학자가 실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의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단수이건 복수이건)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Hegel의 사상만은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맑스주의의 철학은 이 종류의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주의의 史的唯物論은 역사의 과정이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철학에 의하면 역사적 과정의 단계는 이 유물사관적 법칙에 의하여 엄밀하게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힘에 의하여 이 발전의 단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의 법칙을 인식하므로써 역사의 장래의 방향을 통찰한 후에 비로소 자기의 행위를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한 맑스주의의 철학은 Hegel철학과 전적으로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시 맑스와 Hegel은 역사의 법칙의 내용에 관하여 전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前者가 유물론적인 데 대하여, 後者는 관념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틀린 점만에 정신이 팔려서 그 동일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Hegel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맑스주의 철학에 있어서도 도덕성의 입장을 물리치고, Sittlichkeit(人倫性)의 입장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Hegel로부터 이어받은 가장 현저한 특징이다. 맑스주의의 철학은 과학적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그 생각에 의하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역사의 과정을 결정하는 법칙을 찾아내고, 이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엥겔스가 사회주의를 두 종류, 즉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로 나눈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에 의하면 맑스주의 이전의 사회주의적인 先行者 가령 쌍시몽이나 오웬등은 공상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자본주의 사회의 결함을 지적하였고, 사회주의 사회가 실현되어야 할 이상으로서 생각하고 있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상적 사회

주의에 대하여 맑스주의의 사회주의는 과학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사회주의적 이상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법칙에 의하여 필연적이며, 불가피하게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하며 그리고 또 몰락하여 간다는 것 그리고 그 대신 사회주의 사회가 닥아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엥겔스는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과학적이라는 것은 그것에 의하여 역사의 발전이 불가피하게 결정되는 역사의 법칙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상을 맑스주의자 이외의 현대의 경험론적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나는 경험론자라고 자칭하는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가 다소간의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들은 보통 맑스주의 철학과 같이 역사의 전 과정을 불가피하게 결정하는 법칙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연 속에 자연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역사 속에도 어떠한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자연현상이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어 있는 것은 자연과학에 의하여 분명하게 되었으니까 역사도 또한 우리가 과학적이려고 바라는 이상은 같은 방식으로 연구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기 이전에 역사의 법칙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역사의 과정은 비록 완전일 수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그 본질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법칙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행위는 이 법칙에 적합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러한 철학자들에 있어서는 도덕성의 입장은 전적으로 무가치한 것이다. 그들이 보통 사회과학을 중요시하는 것도 이러한 사상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도덕성의 입장 대신 Sittlichkeit(人倫性)의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헤겔의 입장은 오늘날에도 과학적이라고 자부하는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유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와같은 생각은 과연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속에 무엇인가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나는 이 강연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 보고

자한다.

< II >

우선 먼저 우리는 역사의 전 과정이 법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생각은 특히 맑스주의 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역사적 결정론이라고 부르코자 한다.

역사적 결정론은 보통 조그마한 사건까지도 포함해서 역사의 모든 사건은 모두 법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인간이 자기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것, 환언하면 우리의 행위가 여하한 법칙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행위가 자유 의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역사 속의 모든 사건이 법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또한 역사의 전 과정은 본질적으로는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비록 자유의지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할지라도) 역사의 과정에 대하여 아무런 중요한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역사는 필연적으로 그 자신의 법칙에 의하여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에 있어서 역사적 결정론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로 주장되어 있다. 그리고, 맑스주의 철학도 또한 이러한 형태의 결정론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역사적 결정론이 이러한 형태로 주장하면, 나는 이것을 반증(反證)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며, 혹은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나는 개개인 특히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역사의 과정에 대하여 큰 영향을 주며, 그 결과 역사의 방향이 변해간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이것이 증명되면, 개개인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역사의 법칙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 나는 더욱 한 발 나아가 개개인의 어떤 행위가 없었더라면, 역사는 실제와는 딴 방법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나로서는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나는 비록 강하게 역사적 결정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개인의 특정한 행위가 역사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연출했다는 것을 논해 보아도 역사적 결정론자는 또한 그와같은 개인의 출현 그 자체가 역사의 법칙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여 자기의 견해를 변호할 것이다. 나는 또한 그들을 향하여 그러면, 만일 그 개인이 그 일을 완성하기 이전에 죽었다고 한다면 역사의 과정은 무엇인가 다른 방향을 밟지 안했을 것인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정론자는 여전히 비록 그 개인이 실제보다 더 빨리 죽었을 지라도 그 사람 대신에 누군가 딴 개인이 나타나서, 본질적으로는 같은 일을 하였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이 이상 결정론자를 반론할 수는 없다. 역사의 과정이 특정한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의하여 변경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있어서 역사의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이며, 그것은 결코 변경시킨다든가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인간의 행위가 역사의 방향을 변하게 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가지지 못한다.

역사적 결정론을 논박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 과거에 관해서는 역사적 결정론을 반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미래에 관해서는 어떨까. 내가 어떤 결정론가에 대하여 역사의 미래의 과정을 예언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그의 예언이 틀렸었다는 것을 실제의 미래의 역사의 과정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생각해 보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결정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다만 그 결정론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 데 불과하다. 지금까지로 보와서는 결정론 자체는 아직 반증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그 결정론자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역사의 법칙을 올바르게 인식 못하고 그때문에 틀린 예언을 해버렸는지도 모르기 때문이

다. 비록 몇 번이건 결정론자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이 나타나더라도 결정론 자체는 결코 반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역사적 결정론은 극히 강력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반증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이것이 결정론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결정론이 자기를 논증하는 것도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는 결정론이 과거의 역사의 과정을 이끌어 대는 것만으로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결정론을 과거의 과정을 이끌어대는 것으로써 반증하지 못하는 것과 똑 같은 이유에 의해서 인것이다. 과거의 사건이 이미 이러한 것처럼 일어나 버렸으며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사건에 관하여 그 生起가 역사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서 결정되었든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實驗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의 과정을 고찰할 때 우리는 때로는 分明히 역사가 역사의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어떤 一定한 方面으로 움직인 것처럼 느낌을 갖는 수가 있다. 그런고로 때로는 時代의 흐름은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갖으며, 그 힘이 反抗하여 時代의 흐름을 變化시키려는 것은 헛된 勞苦에 不過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역사적 결정론 그 自體는 결코 증명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그 시대에 어떤 偉人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行動이 그 영향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상상하여 보자. 그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時代의 흐름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充分히 생각할 수도 있으며 비록 그때에 이 變化가 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이 작은 變化가 마침내는 다음 時代에는 큰 變化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종류의 斷定은 너무나도 空想的이라고 말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것을 否定할 만한 根據는 全然 없는 것이다. 나는 앞서 우리는 特定한 個人의 特定한 行爲가 역사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함으로써 역사적 결정론을 論駁할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우리는 역사의 흐름이 必然的이며, 不可避한 것으로 보인다고 主張하는 것만으로써 결정론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이 點에 관해서는 두 개의 서로 對立하는 主張, 즉 反

決定論이나 決定論도 同等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며, 서로 相對方을 反論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萬一에 결정론자가 自己 주장을 證明하려고 원한다면 그는 그것을 未來에 대해서도 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未來에 있어서의 역사의 과정의 必然性を 증명하는 것은 可能할까. 결정론자가 未來에 관해서 豫言을 하며 그 豫言이 언제나 的中했다고 생각하여 보자. 언뜻 보기에 이 경우에는 決定論은 證明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事態를 면밀하게 反省하여 본다면, 우리는 결정론은 이로 말미암아 全然 증명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人間은 결정론자 자신까지도 包含해서, 역사의 世界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의 行爲를 하고 있다. 역사는 우리 自身에 關係없는 全的으로 客觀的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론자가 歷史의 未來의 과정을 豫言하고 있을 때 그 自身이 歷史에 參與하고 비록 些小한 일일지라도 무엇인가의 影響을 역사에 주고 있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萬一에 결정론자가 역사는 必然的으로 一定한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方向의 實現을 위하여 努力하였다고 한다면 혹은 적어도 그 實現을 妨害하려 하지 안했다고 한다면 그는 將來의 역사과정에 對하여 責任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는 歷史 속에서 무엇인가의 役割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비록 역사의 과정이 결정론자의 豫言, 그대로 움직였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역사의 법칙에 의해서 不可避하게 決定되었는지 혹은 그의 行爲까지도 包含해서 우리의 行爲에 의해서 實現되었는지 決定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나는 역사의 결정론의 주장은 어쨌든 증명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過去에 관해서이건 未來에 관해서이건 역사적 결정론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결정론을 反證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결정론은 證明도 反證도 할 수 없다고 結論지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나는 이것은 分明히 역사 결정론이 無意味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결정론은 나쁜 意味에 있어서의 형이상학적 견해의 一種이며, 즉 學問的

으로는 아무런 意味도 갖지 않은 것이다. 萬一에 우리가 神처럼 全知全能하며, 역사속에 參與하지 않고, 역사세계를 超越해서 역사 전체를 通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역사적 결정론이 참인가의 여부를 決定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神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있으며 스스로 行爲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現在 狀態 이대로의 人間인 限, 우리로서는 人間의 行爲를 그 속에 지니고 있는 역사의 過程이 果然 역사의 法則에 의하여 必然적으로 決定되어 있는가의 如否를 決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적 결정론은 결코 科學的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無意味하며 形而上學的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역사적 결정론과 같은 形而上學 思想을 科學的인 생각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을까. 나는 여기에는 自然法則이라는 性質에 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역사적 결정론을 科學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은 多分히 우리가 自然科學을 科學的인 認識의 模範이라고 생각하고 模範을 본받아서 考察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自然科學에 있어서 우리는 自然現象을 支配하는 自然法則을 發見하려고 努力한다. 自然法則은 모든 自然의 事件을 결정하며 自然속에는 自然法則에 따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存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自然法則은 그것이 모든 自然現象을 支配한다는 의미에서 必然性이라는 性格을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러한 事實로부터 우리는 역사 속에 모든 역사적 현상을 必然적으로 支配하는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고 期待할 수 있으며, 또 그 법칙을 찾아냈을 때에만 역사에 관한 우리의 知識은 科學的으로 된다고 推論하기 쉽다. 이것은 자연적인 偏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과학에 의하여 確立된 自然法則이라는 性質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법칙은 역사적 결정론에 의하여 주장되는 역사적 법칙과 똑같은 性質을 갖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自然法則의 性質을 反省해 보자. 자연법칙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必然性이라는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은 分明하다. 自然法則은 여하한 例外도 許容하지 않으며, 모든 自然현상을 支配한다. 그러나 나의 보는 바에 의

하면 이 意味에 있어서의 必然性이란 자연의 事件의 全過程이 자연법칙에 의하여 不可避하게 決定되어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다만, 어떤 特定한 條件이 존재하면 特定한 事件이 不可避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며, 우리가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조건을 바꾸지 않고 조건을 그대로 놓아 둔다면 一定한 사건은 자연법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條件을 우리 自身の 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바꾸면 틀린 事件이 일어나며 이리하여 自然의 事件의 過程은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다. 自然科學에 있어서 自然法則이란 決코 人間의 힘에 의하여 自然의 條件을 바꾸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좀 反省해 본다면 우리는 항상 자연현상의 조건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分명한 事實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自然科學을 연구할 때에 實驗을 行한다는 것을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實驗을 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疑心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現在 존재하고 있는 조건을, 우리가 바라는 다른 것으로 바꿔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實驗을 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되풀이하여 같은 條件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實驗은 不可能할 것이다. 그런 故로 우리가 實驗을 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意志에 의하여 自然現象의 過程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萬一에 자연 현상의 과정을 바꿀 수가 없다면 자연 법칙을 發見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자연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자연을 征服한다는 데에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近代의 기술문명은 이런 일이 없이는 確立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萬一에 자연 법칙이 必然的이며, 또한 不可避하게 自然現象의 過程을 決定하는 것이라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自然法則을 발견함으로써 자연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自然現象을 결코 變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자연 현상의 過程을 다만 그것이 進行하는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反省해 본다면 우리는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 있다

는 事實은 결코 자연 현상의 과정에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연 법칙에 의한 決定의 불가피성을 말할 수 있다. 모든 自然現象은 自然法則에 의하여 必然적으로 決定되어 있는 것이며, 自然法則에 違反하는 것은 存在하지 않는다. 자연 현상이 自然法則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은 不可避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의 不可避性이란 自然現象의 過程의 不可避性과는 全적으로 다른 것이다. 우리는 이 相違한 點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자칫하면 자연현상의 過程의 不可避性을 자연현상이 자연현상에 의하여 不可避하게 된다는 데에서 必然적으로 導入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理由는 아마 우리가 天體運動과 같은 것을 모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種類의 자연현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人間의 힘에 의하여 자연현상의 過程을 變化시킨다는 것은 困難하다. 천체운동은 必然적으로 自然法則에 의하여 必然적으로 決定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 자연현상이 自然法則에 의하여 不可避하게 決定된다는 것은 某 現象의 過程의 不可避性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나는 다른 보통의 경우, 즉 우리가 自己의 힘으로 자연현상을 支配할 수 있는 경우와 本質的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천체운동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엔 다만, 천체운동이 그것에 의하여 決定되어 있는 條件을 바꾸는 것이 原理적으로 不可能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無數한 달로켓트를 數次 지구에 되돌아오게 하지 않고 즉 오직 지구에서 달의 一方通行만으로 달에 命中시켰다고 想像하여 보자. 그러면 달의 質量은 점점 불어나고 지구의 質量은 점점 減少되어 갈 것이다. 그리하여 그 結果 달의 質量이 지구의 質量보다도 커져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떠한 事態가 일어날 것인가. 달은 지구의 周圍를 도는 것을 中止하고, 지구가 달의 周圍를 돌기 始作할런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極히 奇妙한 想像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思考實驗은 分明히 天體의 運動까지도 결코 자연질서에 의하여 不可避하게 決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理論적으로

는 人間의 힘으로도 變化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달로켓트를 올리는 것은 自然法則을 따름으로써 可能하게 되었으며 올린후의 로켓트의 運動은 자연법칙에 의하여 엄밀하게 必然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모든 현상은 자연법칙을 좇으므로써 생기며, 이것은 비록 地球가 달의 周圍를 돌기 始作하는 경우일지라도 如前히 變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故로 우리는 天體運動일지라도 자연법칙과 아무런 豫告도 없이 人間の 힘에 의해서 變化시킬 수 있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현상이 자연법칙에 의하여 不可避하게 規定된다는 것이 자연현상의 過程의 不可避性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分明해졌다고 생각된다.

나는 먼 將來에 있어서 實際로 천체운동을 變化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人間の 힘은 現在나 將來도 限定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천체운동과 같은 자연현상의 過程을 變化시킨다는 것은 氷遠히 不可能할 것이다. 우리가 그 過程을 變化시킬 수 있는 자연현상은 오히려 些少한 現象뿐이며, 全體로서는 자연현상의 過程은 自然法則에 의하여 不可避하게 決定되어 갈 것이다. 우리가 자연현상의 未來의 過程에 關해서 豫言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理論으로는 天體運動과 같은 現象과 우리가 日常生活속에서 支配하는 사소한 現象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差異도 없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건 우리의 現在の 條件을 變化시킬 수 있다면 자연현상의 過程을 變化시킬 수 있는 것이다. 現在の 條件을 바꾼다는 것이 자연법칙에 違反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만, 자연법칙을 따름으로써만 그 條件을 變化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自然科學이 進步하여 감에 따라 조건을 變化시킬 수 있는 範圍는 더욱 더 커가는 것이다. 자연과학이 近世 初에 確立되기 以前에는 人間은 자연현상의 條件을 變化시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極히 좁은 範圍內에서 밖에 자연현상의 過程을 支配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자연현상의 過程을 자연법칙에 의하여 不可避하게 決定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그러나 自然科學이 確立된 후부터 事情은 바뀌었다. 우리는 하루 하루 자연현상에 對한 支配의 범위를 擴大하며 있는 것이다. 자연법칙이 不可避하게 자연현상의 過程을 決定한다고 생각하

는 것은 分明히 자연현상에 대한 支配가 增大하고 있다는 事實과는 矛盾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자연법칙의 必然性이라는 것과 自然現象의 過程의 必然性과는 別途의 일이라고 結論지운다. 그리하여 萬一 그렇다면 歷史的 決定論이 생각하는 歷史的 法則이라는 것이 자연법칙과는 全적으로 相異하는 것은 分明하다. 왜냐하면 決定論은 역사의 法則에 의하여 역사의 全過程의 必然性이라는 것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自然科學은 이와 같은 法則을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歷史的 決定論의 過誤는 자연법칙의 性質의 誤解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은 두 개의 相違한 種類의 法則을 混同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法則이 必然적으로 역사의 過程을 決定한다는 역사적 결정론의 主張은 決코 科學的이 아니며, 오히려 形而上學的이며 論證도 反證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決定論者는 나에게 다음과같이 問疑할지 모른다. 비록 당신의 議論이 正當하다 할지라도 歷史決定論을 다른 根據로부터 基礎지을수 없을가? 或 역사속에 어떤 一定한 規則的인 發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에는 당신의 議論은 全적으로 붕괴하여 버려서 우리는 역사의 法則이 역사의 全過程을 不可避하게 決定한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하고. 그러나 나는 이 疑問에 答하는 것은 極히 容易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規則的인 역사의 發展이 있는가라는 事實에 關한 問題에는 全然 關心이 없다. 이 問題는 역사적 事實에 의하여 經驗的으로 檢討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비록 사실 어떤 規則的인 歷史發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決코 歷史的 決定論이 참이라는 것을 證明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規則的인 역사의 發展은 역사의 法則과는 상위한 原因에서 생긴 結果인지 모른다. 상이한 國家들의 國民이 비슷한 狀況 밑에서 偶然히 비슷한 行爲를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不合理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人間은 民族과 時代의 상이와는 關係없이 本質的으로 같은 性質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萬一에 두 나라의 國民이 같은 狀況에 直面해서 全적으로 상이한 行爲를 하면 두 나라의 역사적 展開는 全적으로 상이한 것으

로 될지도 모른다. 그런故로 萬一 事實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過去의 역사적 展開에 規則的인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러한 나라의 將來의 展開가 같을 것이라고 豫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이 將來 全的으로 相異한 展開를 한다는 것은 充分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미 역사적 決定論의 형이상학적 性格을 指摘하였는데 만일에 이 指摘이 옳았다면 역사적 決定論을 事實的인 基礎위에 세우려는 시도가 成功하지 못하는 것은 當然한 일일 것이다.

< III >

以上에서 나는 역사적 決定論이 참인가 아닌가라는 問題를 論議하여 왔다 나는 역사적 決定論을 물리쳤는데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決定論은 全的으로 形而上學的인 것이어서 證明도 되지 않으며 따라서 學問的 意義에 있어서는 無意味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行爲를 決定하기 前에 먼저 歷史의 全過程를 必然的으로 決定하는 역사의 規則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全的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제 나는 第2의 問題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역사적 決定論에 있어서 생각하는 決定論的 법칙 이외의 다른 種類의 역사의 法則, 즉 自然科學에서 생각하는 自然法則과 같은 性格을 가진 法則이 存在하는가 없는가 하는 問題이다. 나는 앞서 이 두 種類의 법칙의 相違한 點에 關해서 말하였다. 비록 決定論的인 法則이 認定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다른 種類의 역사의 법칙이 存在할는지 모를 일이다. 나에게서 實證主義의 地盤위에서 있다고 稱하는 많은 哲學者는 普通이 種類의 역사의 법칙을 認定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自然法則이란 一定한 조건이 주어지면 一定한 事件이 必然的으로 생긴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조건을 우리 自身の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또한 自然現象의 過程까지도 變化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人間의 힘으로 變化할 수 있는 조건의 範圍는 極히 限定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우리가 自然現象의 過程을 大規模로 支配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우리는 日常生活에 있어서 分明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 關해서는 自然現象의 過程을 變化할 수 있으나 그러나 自然現象 全體를 考察하면 우리는 그 過程이 本質的으로는 不可避하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點에 있어서 自然法則은 極히 強한 性格을 가지고 있다. 自然法則은 本質的으로 自然現象의 過程을 支配하고 있으며, 우리는 自然現象의 生起를 방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自然法則에 의해서 必然的으로 生起하도록 決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自然法則에 의하여 不可避하게 생기는 將來의 事件에 對하여 準備을 할 수 있는 것 뿐이다. 가령 태풍이 接近하여 올 때 우리는 그 來襲을 妨害할 수는 없으며, 그 來襲 後에 일어날 破害에 對하여 準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自然現象에 對處하여 우리의 行爲를 決定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에 의하여 自然現象의 將來의 過程을 豫言할 수 있을 만큼 自然法則을 아는 것이 重要하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原理를 確立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行爲의 원리 없이는, 우리가 비록 自然現象의 將來의 過程에 關한 知識을 가졌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決定하지는 못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自然現象의 將來에 關한 知識에 比한다면 그리 重要하지 않다. 왜냐하면 自然現象의 將來의 過程은 本質的으로 自然法則에 의하여 決定되어 있는데 對하여 우리의 行爲는 다만 조그만한 役割을 하고 있음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同稱으로 萬一에 自然法則과 같은 法則이 역사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역사의 法則에 關한 知識을 가지고 역사의 將來의 過程에 關해서 正確한 豫言을 할 수 있게끔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같은 法則이 역사속에서 찾아내어 질수 있는 가의 問題는 우리로는 큰 意義를 갖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性格의 역사의 法則은 存在할까?

역사적 事件의 繼起속에는 確實히 一定한 條件이 주워지면 一定한 事件이 일어난다는 法則的인 規則性이 存在한다. 만일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하한 歷史的 證明도 不可能할 것이다. 歷史를 연구할 때 우리는 어째서 어떤 歷史的 事件이 일어났는가를 묻고, 이 問題에 對해서 說明을 주려고한

다. 그러나 歷史的 說明이라는 것은 歷史的 事件의 繼起에 관한 어떠한 法則的인 규칙성을 豫想하는 것이다. 歷史家의 書籍에서 몇 個의 例를 引用해 보면, 샤루루 세에뇨보스는 「佛蘭西 國民의 歷史」라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즉 「條件은 革命하기에 마땅하였었다.」政府는 軍事的 힘을 갖지 않으며, 勞働者階級은 심한 失業狀態를 經驗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베네딕트·크로오케는 「19C世紀의 西歐史」라는 冊 속에서 「激烈한 反逆者의 時代가 준비되며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自由가 開始하였기 때문에 洞察力과 批判的精神이 가득찬 文化의 形成이 妨害되고 學生들의 마음은 혼란한 白日夢이라든가 혹은 抽象的인 그리고 單純한 合理主義에로 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歷史的 說明은 充分히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文章을 읽으면 그 說明을 받아들여느냐의 如否는 별도로 하고, 아무런 困難도 없이 容易하게 그 意味를 理解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說明은 理解할 수 있는 것인가. 그 理由는 내가 본 바로는, 우리는 항상 비슷한 歷史的 條件 밑에서는 비슷한 歷史的 事件이 일어난다는 것을 前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一定한 歷史的 條件, 가령 政府에 군사력이 없고, 勞働者階級이 甚한 失業狀態라는 條件이 있을 때는 언제나 어떤 事件, 즉 革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萬一 내가 「政府도 強力한 軍事力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勞働者 계급의 사람들은 그 生活에 전적으로 滿足하고 있었다. 그런고로 革命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면 어떨까. 누구이든 이 文章을 理解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歷史的 說明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 文章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은 歷史的 제조건과 歷史的 事件과의 連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歷史的 說明이 可能하다는 것은 疑心할 것 없이 歷史的 事件의 사이에는 法則的인 連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自然法則과 같은 性質의 歷史的 法則이 存在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일까.

우리는 自然現象과 歷史的 現象과의 사이의 相違에 注目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현상에 관해서 그 過程을 變化시키는 人間의 힘은 極히 적으므로 우

리는 自然의 事件의 將來의 生起를 豫言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不可避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의 경우에는 事情은 全的으로 相違하다. 역사는 언제나 그 속에 人間의 行爲를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란것을 人間의 行爲를 除外하고 考察하는 것은 전혀 不可能한 것이다. 물론 自然現象도 역사에 關與하고는 있다. 왜냐하면 人間의 行爲는 언제나 自然環境 속에서 行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역사 속에서 가장 重要的 役割을 다하고 있는 것은 分明히 人間의 行爲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의 將來의 事件을 豫言하지 못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 아닐까. 自然의 事件에 關해서까지도 이미 말한 것처럼 自然의 條件을 人間の 힘으로 變化시킬 수 있는 限에 있어서는 우리는 將來를 豫言한다는 것이 全然 不可能한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 人間의 行爲는 언제나 가장 重要的 要素로서 包含되어 있다. 우리는 歷史에 關한 豫言이 絕對로 不可能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結論은 혹시 우리가 歷史的 事件의 法則的인 規則的 連關에 關한 命題와 自然法則에 關한 命題와를 比較한다면 더욱 明瞭하게 理解되어질 것이다. 나는 前者의 一例로서 위에 引用한 文章, 즉 「萬一에 政府가 軍事力을 갖지 않고 勞働者階級이 甚한 失業의 狀態에 있다면 그때 革命이 발발한다」라는 命題를 들어보자. 이 文章은 一見한바 自然法則에 關한 命題 가령 「어떤 物體를 괴는 것이 없으면 그 物體는 이리이러한 方式으로 落下할것이다」라는 命題와 같은 形式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雙方의 命題가 다 어떤 條件이 있으면 어떤 事件이 일어난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命題를 그 內容面에서 檢討한다면 우리는 固 兩者의 相違를 깨달을 것이다. 自然法則에 關한 命題에 있어서는 人間の 行爲에 關係하는 條件은 全然 陳述되어 있지 않는데 對하여, 歷史的 事件의 規則的인 連關에 關한 命題는 그 自體 에속 人間の 行爲에 關係하는 條件을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政府에 군사력이 없다는 것과 失業이라는 것은 雙方이 分明히 이러한 性格의 條件이다. 이러한 條件은 언제나 人間の 行爲에 의해서 變更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歷史의 將來에 關해서 正確한 豫言을 할 수 없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歷史的 事件 사이의 法則的인 規則的 連關이 自然法則과 比較한다면 極히 弱한 性格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分明해졌다고 생각한다. 어떤 나라에 비록 정부의 軍事的 無力과 勞動者階級の 失業이라는 條件이 存在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將來 革命이 일어날 것이라고 豫言할 수는 없다. 정부는 대단히 強力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失業者의 數는 정부의 좋은 政策에 의해서 적어질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나라에 將來 革命이 일어날 可能性이 높다고 말하는 것이 許容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以上の 것을 말할 수는 없다. 歷史的 事件의 法則的인 連關은 自然法則과는 全的으로 相違한 것이다. 歷史的 事件의 法則的 連關을 法則이라고 부르는 것은 不適當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歷史的 事件의 法則的인 連關을 認識함으로써 歷史의 將來의 過程에 關한 올바른 洞察을 한 後에 行爲를 取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過誤이어야만 한다. 歷史의 가까운 將來에 關하여 豫言할 수 있는 것은 確實하나 그것은 短時間 內에는 人間의 行爲와 關係하는 條件이라 할지라도 決코 變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 將來를 豫言하는 것은 原理的으로는 不可能하다. 歷史的 事件과 自然의 事件은 이 點 전혀 相違하며 雙方에 對하여 같은 態度를 取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IV >

以上에서 나는 歷史의 法則에 關하여 考察하여 왔다. 이제 나는 나의 主張을 要約하고자 한다. 나는 歷史의 두 種類의 법칙을 區別하였다. 하나는 歷史的 決定論에서 생각하는 법칙이며, 그것은 歷史의 全過程을 不可避하게 決定한다는 意味의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은 普通 經驗論的 哲學者에 의하여 생각되어지는 법칙이며 그것은 自然法則과 같은 性格의 것이라고 한다. 첫째 번 種類의 법칙에 關하여 말하면 나는 그것은 全的으로 無意味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만 形而上學的인 생각에 不過하다. 둘째 번 種類의 법칙에 關해서 말하면 나는 歷史속에는 그와같은 性格의 법칙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自然現象과 歷史現象과의 사이의 相違를 看過해서는 안 된다.

歷史的 說明이 可能하다는 事實은 歷史的 事件 사이에 法則的인 連關이 存在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自然法則에 比하면, 極히 弱한 性格의 것이다. 그것은 法則이라고 부르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萬一 나의 議論이 틀리지 않다면, 여기에서 哲學으로서는 대단히 重要的 結果가 나온다. 그것은 人倫性의 立場은 물리쳐져야 되며 그 대신 道德性의 立場이 回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上述의 두意味의 法則은 다같이 存在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선 將來의 歷史의 過程에 對한 正當한 豫想을 얻은 後에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決定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 큰 잘못이다. 現代 哲學者들 사이에는 과학적이라는 것을 重視하는 強力한 傾向이 있다. 그들은 歷史에 關해서까지 과학적 이라고하는 것은 歷史의 法則(單數 혹은 複數의)을 發見한다는 것 以外의 다른 것이 아니며 그리고 이러한 法則을 發見함으로써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問題는 容易하게 解決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와같이 생각하는 것은 결코 과학적 이 아니며 오히려 反對로 非과학적인 迷信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意味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歷史의 法則의 存在를 前提하는 것은 참다운 意味의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科學은 그것이 무엇이건 事實을 있는 그대로 觀察하는 데에서 出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참다운 과학적인 態度인 것이다. 그런故로 將來의 豫言을 可能하게 할만한 歷史의 法則이 찾아내어 질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로서 認定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決코 非과학적인 態度가 아닌 것이다.

이 강연의 처음에 말한 것처럼 歷史가 哲學의 中心的인 主題로 된 것은 19世紀부터였다. 이러한 傾向은 道德性의 立場에 反對하는 헤에겔의 思想에 의하여 생긴 것이며, 現在에 이르기까지 科學的이라고 稱하는 많은 哲學者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나는 이 傾向이 지닌 歷史的 功績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9世紀의 철학은 道德性의 立場을 固執하여 歷史를 無視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歷史 속에는 아무런 법칙도 存在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 法則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決定할 수 없다는 것이 分

明하게 된 以上 哲學은 한발 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시 道德性的 立場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는 우리가 18世紀의 哲學者와 같은 立場을 取하여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언제나 歷史的 상황속에서 行하여지며, 따라서 우리가 그 속에서 행위가 行해지는 歷史的 상황에 留意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행위의 原理는 決코 歷史狀況의 考察에서 導出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우선 첫째로 行爲의 原理를 確立하고 그리고 둘째로 그 原理위에서 歷史의 狀況속에서 어떻게 行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둘째번 段階에 있어서는 우리는 歷史的 狀況에 關한 知識을 그리고 歷史的 事件의 法則的인 規則的 繼承에 關한 知識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種類의 知識을 充分히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直面한 實際의 歷史的 狀況 속에서 適切한 具體的인 行爲를 行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의 原理 혹은 우리의 行爲가 目標로 하는 方向은 歷史的 狀況의 考察과는 獨立하여 確立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행위의 原理를 행위, 그 自體로부터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前者는 그 自身에 의하여 確立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對하여 後者는 歷史的인 事實的인 狀況을 留意하지 않고는 적절하게 行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行爲의 原理를 確立하는 것은 우리로서 가장 重要한 것이다. 그렇다면 哲學의 中心의 主題는 歷史에서 道德性 倫理學으로 轉換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나는 확언한다. 이것이 나의 結論이다.